

열정과 배신, 동전의 양면 March 29

• 마태복음 26:69-75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을 때, 우리는 ‘후회’합니다.

베드로의 통곡에는 후회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 없다는 책망을 들었지만, 배에서 내려 예수님께 걸어갔던 제자는 베드로가 유일했습니다(마 14:29).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용감하게 무덤 안을 들여다봤던 제자도 베드로입니다(눅 24:12).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는 열정의 아이콘인 동시에 배신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열정과 배신은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열정 없는 사람에게는 배신이란 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정’을 뜻하는 영어 단어 ‘enthusiasm’은 ‘en’과 ‘theos’의 결합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열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벗어난 왜곡된 열정들은 문제들을 야기합니다(롬 10:2). 하나님을 향한 열정인 듯 보이나 실상은 나의 욕망에서 시작된 열심과 열정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저 부인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마 26:74). 베드로의 열정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배신으로 급선회했습니다. 닦이 울고, 아침이 밝아 왔습니다. 베드로의 어둠이 빛 가운데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통곡했습니다. 끝까지 스스로 모든 짐을 지고 자살한 가룟 유다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과거 사건으로 발목 잡을 시선들과 스스로의 수치로부터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히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베드로는 사명을 회복할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의 열정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로써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기까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바른 열정을
가졌습니까?

- ① 하나님 안에 있는 바른 열정입니까?
- ②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기반을 둔 열정입니까?